

보도 시점 2026. 4. 13.(월) 13:30 배포 2026. 4. 13.(월) 09:00  
(2026. 4. 14.(화) 조간)

## 과기정통부, 제1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범죄 사용되는 전화번호 신속 차단으로 피해 예방
-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형 국제 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6년 제1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25년 4분기 실적)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4월 13일(월)에 개최하였다.

이번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25년 4분기에 이루어진 적극 행정 사례 중에서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7건을 선정하였다.

이번 우수사례는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국민 안전 보호와 민생 편의 개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차단 체계 구축」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불법 대부 광고 등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시 해당 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쓰레기 번호(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기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통신 범죄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 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으로 지난 2025년 8월 발효된 미국 관세정책 변경으로 인해 중단된 미국행 국제 우편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하여 유학생 학부모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세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지원한 사례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으로 국제 우편을 보낼 경우 현지 도착 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정한 관세 대납업체를 통해 관세의 사전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행 우편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대납업체가 지정된 다음 날부터 해당 업체와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단기간에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스템 개발 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이는 영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 우편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 우편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 평가 체계 개편,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 사업자 관리체계개선과 '장려' 사례로 △일반우편물 송달 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 확보,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으로 레미콘 품질과 국민 안전 확보 등이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이태용 (044-202-4440)
		담당자	사무관	손진희 (044-202-4448)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 AI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부처	주요 내용
최우수	<p>■ <b>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차단 체계 구축</b></p> <p><b>기존</b>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시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불가능하여 명령 건 중 반송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중지명령 처리 지연</p> <p><b>개선</b>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통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으로 이용중지 처리기간 단축, 경찰청·KISA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마련으로 통신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p> <p><b>효과</b> 보이스피싱·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번호의 신속 차단 및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p>
	<p>■ <b>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b></p> <p><b>기존</b> 관세정책 변경 관련 미 행정명령 발효(25.8.29)에 따라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중지</p> <p><b>개선</b> 미 관세청 승인 관세대납업체와 계약 및 관세신고·대납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p> <p><b>효과</b> 신속한 대응을 통한 대국민 불편 해소 및 영세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보편적 서비스) 및 향후 타국가 관세정책 변경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p>
우수	<p>■ <b>“평가 부담은 줄이고, 환류는 체계로, 성과는 공개로”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평가체계</b></p> <p><b>기존</b>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가 이원화된 달성도 중심 평가로 인해 현장 부담은 크고, 평가 결과가 체계적으로 환류되지 않아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았으며, 출연연 연구성과 또한 국민에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p> <p><b>개선</b> 수많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표성과 중심 통합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인센티브·운영 전반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출연연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설명·공유하는 구조로 자율적 책임경영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평가체계 기반 마련</p> <p><b>효과</b>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임무 중심·대표성과 창출 기관으로의 전환으로 국가 연구관리체계 방향 전환 구현</p>
	<p>■ <b>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다</b></p> <p><b>기존</b> 진입 장벽이 낮은 문자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휴·폐업 후에도 등록을 유지하거나,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등 부적격 사업자가 불법스팸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법적 한계 존재</p>

부처	주요 내용
	<p><b>개선</b> 문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 완료 및 전수점검을 통한 사업자 정비로 불법스팸 전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b>문자사업자 쏠 주기적 관리 체계 개선</b></p> <p><b>효과</b> 문자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급감에 기여하였으며, 선제적 부적격사업자 진입방지 및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등 문자시장의 건전성·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p>
장려	<p>■ <b>일반우편물 송달기준을 완화하여 폭염·폭우로부터 집배원을 지킨다!</b></p> <p><b>기존</b> 우편법 시행규칙상 우편물 송달기일은 "D+3일이내"로 정해져 있어, 폭염·폭우·혹한 등 이상기후 장기화 시 집배원 안전을 위해 탄력적 업무를 운영 할수 없는 상황</p> <p><b>개선</b> 법제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단시간에 법령을 개정할수 있도록 '원스톱 입법지원 절차'를 활용하여 일반우편물 송달기일을 "D+3일이내"에서 "D+4일 이내"로 완화 ※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송달기일 관련 법령 제정(1994년) 후 최초 완화 개정</p> <p><b>효과</b> 폭염 장기화, 폭우·폭설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여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배달 체계 개선을 통한 집배업무량 경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p>
	<p>■ <b>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우체국 소핑 피해업체 지원 방안 마련</b></p> <p><b>기존</b>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해 우체국소핑물 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 중·소상공인 매출 손실 피해 발생</p> <p><b>개선</b>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소핑물 폐쇄로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물품을 직접구매, 판로 확보, 재도약 프로모션 등 발빠른 지원방안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우체국소핑물 최우선 시스템 복구(10.9.)</p> <p><b>효과</b> 신속한 대응을 통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기관의 공공소핑물로서 우체국소핑의 신뢰도를 회복, 지속적인 소상공인 상품 판로 확보 협업 체계 마련</p>
	<p>■ <b>5G 기반 스마트공장으로 레미콘 품질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안전 보호하다</b></p> <p><b>기존</b> 시멘트, 골재 등의 재료를 배합·제조 후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레미콘 기업은 품질저하, 랜섬웨어 등의 이슈 발생 및 비용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p> <p><b>개선</b> 5G 기반의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레미콘 품질(부실시공 사전방지)과 사이버 보안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 보호 및 인명 안전에 기여</p> <p><b>효과</b> 5G 기반의 스마트공장 적용으로 ①실시간 레미콘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②5G 특화망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 ③전국 레미콘·아스콘 공장(약 1082개)에 확산 기대</p>